

연세대학교 수학과 최성락 교수

최성락 회원은 2003년에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에서 바체슬라프 쇼쿠로프(Vyacheslav Shokurov)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niv. of California, Riverside)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에 POSTECH 수학과에 대우조교수로 부임하면서 귀국하였다. 2013년부터는 기초과학연구원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IBS, Center for Geometry and Physics)에서 Research Fellow, IBS Fellow(tenure-track)로 근무하였고, 2016년 3월에 모교인 연세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최성락 회원의 전공은 대수기하학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수기하학의 분야 중에서도 극소모델프로그래밍(Minimal model program)과 관련된 쌍유리대수기하학(birational algebraic geometry)을 전공하고 있다. 극소모델프로그래밍이란 간단히 말해서 주어진 대수다양체와 쌍유리적 관계를 갖는 다양체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생긴 다양체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이다. 그런 다양체를 극소모델(minimal model)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극소모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원래 주어진 다양체의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차원 다양체에 대한 극소모델프로그래밍은 1900년대 초에 이태리 대수기하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3차원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비로소 모리 시게후미(Shigefumi Mori)에 의해서 풀렸다. 그리고 Birkar-Cascini-Hacon-McKernan이 최근에 쇼쿠로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임의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다양체에 대해서 극소모델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증명하여 쌍유리대수기하학 분야에서 급진전이 이루어졌다.

최 회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주로 극소모델이론의 여러 가지 응용을 모색해 왔다. 대수다양체위의 인자(divisor) 및 곡선(curve)으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추(cone)에 대해서 극소모델프로그래밍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Fano type 다양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국내의 연구자들과 이와 관련된 주제로 공동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Okounkov body를 이용한 인자 및 다양체의 연구도 국내 연구자들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 회원은 졸업 후에 지도교수 곁을 떠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새로운 연구주제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저널에 투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해내던 연구원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 귀국 후에는 여러 선배 교수님들로부터 친절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학문적 동료들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말한다. 한국 대수기하학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는 물론이고 자신보다 더 훌륭한 연구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후학의 교육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KMS**

<자유기고 원고 접수 안내>

『대한수학회소식』 편집위원회에서는 독자님의 자유기고를 접수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유기고 주제]

- 수학 관련 에세이
- 수학 관련 학술대회 및 행사 후기
- 수학, 수학교육, 과학기술분야 정책에 관한 의견
- 수학자 인터뷰
- 서평

[분량 및 제출방법]

- 접수일: 상시접수 (단, 게재 예정 호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량: 7,000자 이내
- 제출방법: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보내실 곳: kms@kms.or.kr (대한수학회 사무국)

『대한수학회소식』 편집위원회